

April 4, 2026 주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약 40명)

■전례성가: 입당 없음 | 봉헌 132 | 성체 130 | 파견 138

■빛의 예식 (뒤돌아 서십시오) : 불 축복 > 파스카 초 마련 > 행렬 > 신자들 초에 불 옮김 > 파스카 찬송 긴 노래(다함께 읽습니다)

◎ 용약하여라, 하늘 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여라, 천상의 거룩한 영들아. 구원의 우렁찬 나팔 소리, 선포하여라, 위대한 임금의 승리. 땅도 기뻐하여라, 찬란한 광채 너를 비춘다. 영원하신 임금의 눈부신 광채로 이 세상의 온갖 어두움 모두 사라져 버렸네. 기뻐하여라, 어머니인 교회 부활하신 주님 빛이 가득한 교회. 백성의 드높은 찬양 노래 이 성당에서 울려 퍼진다.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소리 높여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외아드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아버지께 아담의 빛을 갚으시고 거룩한 피로 옛 죄를 씻으셨나이다. 이 파스카 축제에서 참된 어린양 죽임을 당하시어 문설주에 바른 당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 밤에 주님께서서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어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너게 하셨나이다. 이 밤에 불기둥의 빛으로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내셨나이다. 이 밤에 온 세상 어디서나 세속의 악습과 죄악의 어두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구하시어 은총을 다시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이 밤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시어 저승에서 승리하여 오르셨나이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태어남에 무슨 뜻이 있으랴. 오, 놀라워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자비. 오, 크시어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 종을 속량하시려 아들을 내어 주셨네. 오,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죄를 없애셨네. 오, 복된 탓이어라! 그 탓으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네. 오, 참으로 복된 밤, 그리스도께서 저승에서 부활하신 밤 너

홀로 그 시와 때를 알았네. 이 밤은 기록된 대로 대낮 같이 밝으리니 이 밤은 나의 빛, 나의 기쁨. 이 밤은 거룩한 힘으로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모든 허물을 씻어 주네. 죄인들에게 깨끗함을 돌려주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찾아 주네. 미움을 물리치고 화합을 이루며 권세를 누르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은총의 밤에 찬미의 저녁 제사를 받으소서. 거룩한 교회는 별들이 만든 이 초를 봉사자의 손으로 장엄하게 바치며 아버지께 이 제사를 봉헌하나이다. 불기둥의 찬미 소리 들려오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란한 불이 밝혀졌네. 불꽃은 여러 갈래 퍼져 나가도 그 빛 변치도 줄지도 않으리라. 어미 별이 마련한 이 고귀한 밀초가 녹아 흐르며 아름다운 불을 밝히네. 오, 참으로 복된 밤, 하늘이 땅과 만나고 하느님이 사람과 결합된 밤!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촛불이 이 밤의 어두움을 물리치며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이 촛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소서. 이 불꽃, 셋별보다 빛나게 하소서. 결코 질 줄 모르는 빛나는 별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님, 저승에서 부활하시어 온 인류를 밝게 비추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제2독서 창세기 22장 1절-18절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화답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3독서 탈출기 14,15-15장 1절 ㄱ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화답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

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

○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

○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나이다. ◎

○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나이다. ◎

■제5독서 이사야서 55장 1절-11절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살리라.>

■화답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대영광송 > 본기도 > 서간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10

1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 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3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4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5 그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6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7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야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8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9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10 그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야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물 축복 > 초에 불 옮김 > 세례 서약 갱신(성수) > 보편 지향 기도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파견

+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말과 행동으로 전합시다. ^^*

April 4, 2026 주님 부활 성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 13,1)

Jesus loved his own in the world
and he loved them to the end(Jn 13,1).

■ 전례 봉사자

	부활 성야(4/4)	주님부활대축일(4/5)	부활제2주일(4/12)
해설	정명호 미카엘	황현성 요셉	김성숙 마리아
독서	이동현 유리나 곽동화 최지나	강웅일 강태순	신창식 신영향
복사	이하은 공지나 	박한주 미카엘	박한준 라파엘
반주	공승윤 수산나	공승윤 수산나	최아영 아녜스
제대	이명희 비비안나	공승윤 수산나	조윤경 로사
예물	-	엄유상 강예지	이지오 엄유하

- 독서 순서는 담당이신 김은경 (파울리나) 자매님께 문의해 주세요.

■ 성주간 전례 안내

1)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오전 11시

*성지 보호 및 복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교황청으로 보냅니다.

<성주간 전례 봉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